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요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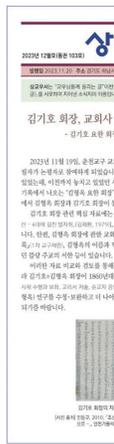
## 다시 쓰는 ‘김기호(김형옥) 요한 회장 약전’

- 김형옥=김기호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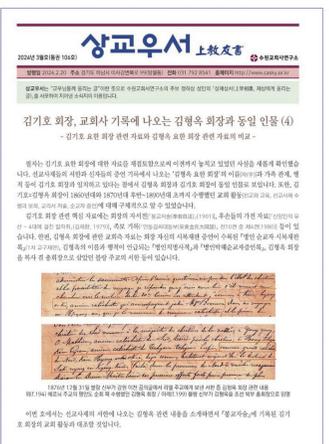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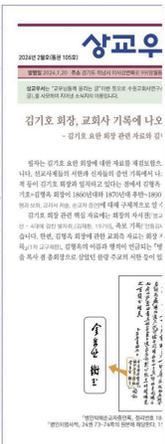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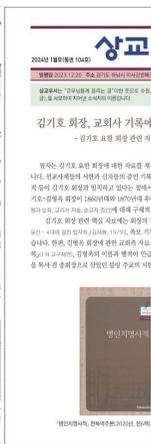
필자는 지난 2022년 11월호(통권 90호)에 ‘김기호 요한 회장 약전’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에 김기호 회장에 대한 자료를 재검토함으로써 이전까지 놓치고 있었던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선교사제들의 서한과 신자들의 증언 기록에서 나오는 ‘김형옥 요한 회장’의 이름(字(字))과 가족 관계, 행적 등이 김기호 회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형옥 회장과 김기호 회장이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또한, 김기호=김형옥 회장이 1860년대와 1870년대 후반~1890년대 초까지 수행했던 교회 활동(전교와 교육, 선교사제 수행과 보좌, 교리서 저술, 순교자 증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2023년 12월호(통권 103호)부터 2024년 3월호(통권 106호)까지 4회에 걸쳐 김기호=김형옥 관련 자료를 소개하면서 김기호와 김형옥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상교우서』 90호(2022년 11월호)



『상교우서』 103~106호(2023년 12월호~2024년 3월호)



필자는 위의 『상교우서』에 정리한 김기호=김형옥 관련 자료 내용을 지난 2월 17일 ‘2024년 상반기 한국교회사 연구자 모임’에서 발표했고, 『교회사학』 24호(3월 31일 간행)에도 논문 「김기호(요한)와 김형옥(요한) 자료 비교 연구 - 동일 인물 확인」으로 투고하여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김기호=김형옥 관련 자료를 정리해 나가면서 김기호=김형옥 회장의 약전도 다시 검토하게 되었고, 2022년 11월호(통권 90호)에

실린 '김기호 요한 회장 약전'에서 여러 가지 오류와 미진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새로 확인한 김기호=김형옥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김기호(김형옥) 요한 회장 약전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김기호(金起浩) 요한 회장 = 김형옥(金衡玉, 金亨玉) 요한 회장의 약전

김 회장의 자서전인 『봉교자술』에는 이름, 출생 연도, 고향, 부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고, 세례명인 요한(若翰)만 확인된다. 가전 전승에 의하면, 김기호는 조상 대대로 살던 황해도 수안(遂安) 무송동(茂松洞)에서 출생했다. 그의 가문은 구(舊)안동김씨 대사성공파(大司成公派)에 속한다. 족보에는 그의 자(字)가 형옥(亨玉)으로, 교회측 기록에서는 형옥(衡玉)으로 나온다. 가전 전승에는 1824년생인데, 족보와 교회측 기록(시복재판 증인 김형옥 자신의 진술)에는 1826년생으로 나온다.

김기호(김형옥)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여 학문을 익혔다. 젊은 시절 서울로 올라와 명문가나 과장(科場)에 출입하면서 출세할 길을 찾았으나 증병에 걸렸다 살아난 이후에는 포기했다. 여러 학문을 배우다가 우연히 지인의 집에서 천주교 서적인 『성세추요(聖世芻蕘)』를 얻어 읽고 교리를 공부한 다음 동향 친구인 이운거(李雲擧)와 함께 제4대 조선대목구장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에게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았다. 이때 김기호(김형옥)는 '요한 세례자'를, 이운거는 '시몬'을 세례명으로 삼았다.

김기호(김형옥)는 고향으로 내려와 천주교를 전파하는 중에 집안의 핍박을 받아 가족을 데리고 황해도 서흥(瑞興) 땅으로 옮겨 살았다. 그곳에서 입교시킨 사람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 베르뇌 주교에게 세례를 받게 했고, 자기가 살던 서흥 섬곡(蟾谷, 두꺼비집골)[교회측 기록에는 능동(陵洞)으로 나옴]에 공소(公所)를 마련했다. 자기집 공소에 베르뇌 주교를 맞이하여 성사를 집전하게 했고, 이후 황해·평안도 지방의 전교회장으로 임명되어 각 지역을 돌면서 천주교를 전파했다. 이 과정에서 1866년 순교성인 우세영 알렉시오를 입교시켰고, 순교성인 유정률 베드로와도 친분이 있었다. 1863년 9월 베르뇌 주교가 황해도 공소 방문 중 곤욕을 치른 사건 때에도 수행했으며, 관련 내용을 『봉교자술』과 시복재판 증언에 기록으로 남겼다.

1866년(병인)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자 서흥 어리곡(於里谷, 어리골)[교회측 기록 어리동(於里洞)]으로 피신했으나 다시 포졸들이 쳐들어와서 그곳을 떠났다. 이후 가족을 피신시키고 혼자 각지를 돌아다니다가 경기 삭녕(朔寧) 지역에 훈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몇 년간 편안히 살았지만, 신자들과의 교류는 없었다.

1876년 블랑(Blanc, 白圭三) 신부를 비롯한 프랑스 선교사제가 다시 조선에 들어오면서 천주교회가 재건되기 시작했다. 블랑 신부의 지시로 그를 찾아온 신자들과 함께 강원, 황해, 경기 산간 지역의 신자들을 방문하여 성사 준비를 시켰다. 1876년 말~1877년 초에 걸쳐 블랑 신부를 수행하여 위의 지역을 순회했다. 순회를 마친 후 블랑 신부는 김기호(김형옥)를 조선 북부지역의 총회장으로 임명했다.

블랑 신부의 지시로 1877년 봄에 황해도 배천(白川)으로 이사해서 새 신부를 모실 준비를 했다. 1877년 제6대 조선대목구장 리델(Ridel, 李福明) 주교, 두세(Doucet, 丁加彌) 신부, 로베르(Robert, 金保祿) 신부가 입국했는데, 두세 신부와 로베르 신부는 배천의 김기호(김형옥) 집으로 가서 조선 말과 풍습을 배웠다. 그해 말 로베르 신부는 강원도 이천으로 옮겨가고, 김기호(김형옥)는 두세 신부의 집주인이자 복사로서 사목 활동을 보좌했다.

1878년 음력 6월 이후 두세 신부는 경상도로 전임되고, 김기호(김형옥)는 로베르 신부의 지시로 사령 소소둔치에 집을 구해 예비신학교를 마련하고 예비신학생을 가르쳤다. 또한, 로베르 신부의 사목 순회에 수행하면서 충청도, 강원 일대에서 전교 활동을 했다. 1879년 드게트(Deguette, 崔鎭勝) 신부의 체포 소식이 들리자 로베르 신부와 함께 강원 양구 궁골 공소에 피신했다. 피신했던 여름 동안 로베르 신부의 지시로 교리서인 『구령요의(救靈要義)』를 저술했다.

대목구장 직무대행인 블랑 신부의 지시로 김기호(김형옥)는 평안도 지역을 방문하여 예전 신자들을 회개시키고 성사 준비를 시켰다. 김 회장의 평안도 방문은 1879년부터 1882년에 걸쳐 3차례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로베르 신부가 평안도 지역에 와서 성사를 집전했다. 블랑 주교는 ‘평양[평안도] 교회의 재건’에 김기호(김형옥)의 공로가 컸다고 인정했다.

1882년 블랑 신부가 전라도에서 서울로 올라오자 김기호(김형옥)를 불러 복사 겸 총회장으로 삼고, 판공할 때마다 남녀 신자들의 성사 예비 공부를 맡겼다. 이 무렵 김기호(김형옥)는 청계산 아래 광주 토구리[토골, 土谷. 현재 의왕시 청계동. 하우현 지역]에 자식 식구를 거주하게 했다.

1883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거행된 블랑 주교의 성성식에 주교를 수행하여 참석했고, 나가사키에서 조선 입국을 준비하는 조스(Josse, 趙) 신부에게 조선말과 풍습을 가르쳤다. 모든 일정을 마친 제7대 조선대목구장 블랑 주교와 조스 신부, 김기호(김형옥) 일행은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고 상해를 거쳐 제물포를 통해 입국했다. 상해에서 파리의방전교회 대표부 건물인 삼덕당(三德堂)을 방문하여 베르뇌 주교 등 순교자의 그림을 확인하고, 이때 감상을 ‘삼덕당기(三德堂記)’로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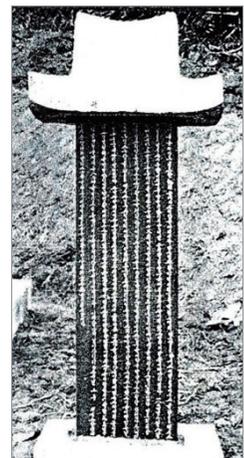
1885년 블랑 주교가 일본으로 갔을 때 푸아넬(Poisnel, 林道行) 신부와 함께 신자 교육을 위해 교리문답서인 『소원신종(溯源慎終)』을 저술했다. 또한, 김기호(김형옥)는 주교의 지시로 『성경직해광익(聖經直解廣益)』의 번역[수정]을 맡아서 수년간 진행했다. 이때 『성경직해광익』을 처음 ‘번역’한 것은 아니고 이전의 번역본을 다시 검토하면서 수정한 것이다.



김기호 요한 회장  
『경향잡지』 1254호(1972년 9월호), 26쪽.



1978년 10월 건립 당시 공적비와 묘소  
『신앙인의 유산 - 4대에 걸친 발자취』 화보



1890년 블랑 주교의 선종 이후 제8대 조선대목구장으로 임명된 뫼텔(Mutel, 閔德孝) 주교가 1891년 조선에 입국했다. 김기호(김형옥)는 뫼텔 주교의 지시로 주교와 같이 입국한 뫼테르트르(Dutertre, 姜) 신

부에게 조선말을 가르쳤다. 이 무렵 『성경직해광익』의 번역[수정]을 완성하여 뫼텔 주교에게 바쳤고, 이 번역본은 주교의 감준을 거쳐 1892~97년에 『성경직해』(전9권, 활판본)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1891년 뫼텔 주교의 허락 아래 교회 직무에서 물러나 토구리[하우현]로 내려가 정착했다.

1893년 하우현 공소를 방문한 왕림본당 주임 알릭스(Alix, 韓若瑟) 신부는 공소 신자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공소 강당을 건립하기로 했다. 알릭스 신부는 김기호(김형옥)의 제안에 따라 하우현 교우촌 3곳의 가운데 지점(현재 성당 위치)을 강당 터로 정했다. 알릭스 신부가 제공한 자금과 공소 신자들의 노력이 합쳐져 초가(草家) 공소 강당이 건립되었고 1894년 6월 2일에 축성식이 거행되었다. 1900년에 하우현 공소가 왕림본당에서 분리되어 본당이 되었고, 초대 주임으로 샤프랭(Chapelain, 蔡) 신부가 그해 9월에 부임했다.

김기호(김형옥)는 1900년 9월 19일 명동성당 지하소성당에서 열린 시복재판 127회차에 출석하여 병인 순교자들에 대해 자신이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내용을 진술했다. 1901년에는 자신의 신앙생활, 교회를 위한 헌신, 믿음의 일생을 담은 『봉교자술(奉敎自述)』을 저술했다. 1903년 12월 21일에 선종하여 하우현에 묻혔다.

이후 후손들이 선종 75주년을 맞아 1978년 10월에 공적비를 묘소 앞에 건립했고, 1989년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에 선산을 마련하여 이장하였다. 2021년 5월 27일 수원교구의 배려로 김기호(김형옥) 요한 회장이 처음 묻혔던 하우현으로 다시 모시게 되었다.

#### \* 김기호 요한 회장 관련 핵심 자료

김기호, 『봉교자술(奉敎自述)』, 1901.

김재환, 『신앙인의 유산 - 4대에 걸친 발자취』, 신일인쇄사, 1979,

安東金氏大同譜 編纂委員會, 『安東金氏大同譜』(전10권), 1980. (제4권 6편)

#### \* 김형옥 요한 회장 관련 핵심 자료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1차 교구재판 1899~1900, 2차 교구청위임재판 1921~1925)

『병인치명사적』 7권, 10권, 24권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고문·색인 편, 현대문 편)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제들의 서한(A-MEP Vol.579~580) - 칼레 신부, 블랑 주교, 로베르 신부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4호, 3월 31일 간행 예정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